

어린이 책꽂이



▲우리 동네 올챙이 연못=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동화와 소설을 쓰고 있는 함평출신 작가 이상권씨의 장편동화. 저마다 상처를 안고 숲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미나리밭에 사는 올챙이를 비롯해 작고 힘없는 동식물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보듬고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어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출-8천800원>



▲향기로 가득한 옛 그림들= 우리 예술세계의 우수성을 돌아보게 하는 '어린이 옛그림 산책' 두 번째 권. 조선 선비들의 우아한 멋을 담은 다양한 문인화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박연폭포'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등 걸작을 남기며 '그림의 성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선의 진경산수화도 만날 수 있다. (시공주니어·1만원)



▲숨바꼭질='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사회 공포증을 겪는 아이의 심리와 행동을 보여주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렸다.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학교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으로부터 늘 숨고 싶어하는 열두 살 현주의 이야기를 따뜻한 위로로 담아 풀어냈다. <미래아이·9천원>



▲꽃이랑 놀자='꼬까신 아기 그림책' 시리즈 제8권. 땅을 딛고 첫걸음을 떼는 아이들에게 알록달록한 꽃 세상을 보여준다. 진달래꽃, 제비꽃, 민들레꽃, 나팔꽃, 그리고 해바라기꽃 등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 속에서 피고 지는 아름다운 '꽃'을 예쁜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우리 숲을 지키는 도토리나무 육 형제=동화작가인 이상배씨가 어린이들에게 '도토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자연 교양책. 여기서 육 형제는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의 여섯 종인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를 가리킨다. 왜 참나무 열매가 도토리로 불리는지를 알려준다. <해와나무·8천500원>



▲오래된 흙벽집=동화작가 이상교씨의 신작. 실제 작가가 경기도 가평에서 체험한 자연과 하나 되어 숨 쉬는 오래된 흙벽집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다. 아이들에게 사람이나 동물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쉰다는 사실과 자연의 신비와 가치에 대해 알려준다. <침어람주니어·9천원>



▲거위의 꿈=조재현, 박현숙 등 동화작가 8명이 희망을 주제로 쓴 동화책 모음집. 동네 아줌마들과 화투만 친다고 딸에게 편지를 들은 엄마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이야기, 어른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할머니 이야기, 보이지 않는 편견에 상처받는 다문화 가정 이야기 등 꿈과 희망에 대한 따뜻한 격려를 담았다. <문공사·8천500원>

▲내가 좋아하는 곤충=그림책같이 예쁘고 쉬운 곤충도감.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 128종을 컬러 세밀화를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다. 곤충학자 김태우 박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곤충이야기도 가득하다. <호박출·1만5천원>

느림과 비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느림보 마음 문태준 지음



"이 세상이 너무 신속합니다. 쉴 겨를과, 나란히 가는 여유, 늦게 뒤따라온 뒤를 살려냈으면 합니다. 나의 것을 다른 데로 돌릴 줄 알았으면 합니다. 차마 다 하지 못하는 말은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이 공백한 곳에 살지 않도록."(『시작하는 글』 중)

2000년 이후 미담문학상, 소설시문학상 등 시 부문 주요 상을 휩쓸며 '서정시의 맥을 잇는 작자'로 평가 받는 문태준(39·시인) 시인이 첫 산문집 '느림보 마음'을 냈다. 이번 산문집에서 시인은 느림과 비움의 마음을 바탕으로 너무나 빠른 세상에서 놓치고 사는 소중한 가치들을 돌아보라고 권하고 있다. "적적해서 때로는 눈물을 혼자 흘리기도 합니다. 그 적적해서 어느 때는 멍하니 일없이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비워두

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76쪽) 문 시인이 그간 시에서 보여줬던 서정성은 이번 산문에 고스란히 옮겨왔다. "그에게 있어 시가 바깥으로부터 얻어와 오래도록 정체시켜 언어나 결과물이라면, 산문은 빌려온 세상을 세필로 꼼꼼히 그려낸 커다란 화폭과도 같다"는 평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문 시인의 산문은 청량하고 또한 여백이 많다. 느린 마음, 느린 열애, 느림 닦음, 느린 걸음 4장으로 나눠 천천히 써내려감으로써 그리 작지 않은 분량임에도 여백과 여유를 두려는 필자의 의지가 느껴진다. 또 대상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만의 독창적인 시선도 엿볼 수 있다. 그가 느린 언어로 그려낸 풍경들은 가히 고혹적이다. 이를 보며 독자들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걸어가게 한다. 또한 함평한뎨 섬세한 문장으로 전하는 시인의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소소한 일상 이야기는 폭소보다는 잔잔한 미소를 자아내고, 격정적인 눈물을 끌어내기도 하는 가슴 한 칸을 아릿하게 만드는 묘한 맛이 있다. 그가 던지는 '화두'에는 향기가 있다. '아름다운 주름 생각'에서는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안

은 할머니 냄새가, '진흙덩어리 속 진흙게'에는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갯벌 내음이 퍼진다. '봄비처럼 통통한 호기심' '쓰다듬는 것은 열애입니다' '살날 생각' 등 감각적인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들에서는 고즈넉한 산사를 함께 거닐며 시인과 '대화'하는 느낌이다. 본시 시인인 저자 산문 구성구석에는 그 자체로 시가 되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빛을 발한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한 발 물러서 사물을 바라보는 법, 입에 향기로운 말을 담는 법을 '잘 아는' 시인의 세심함이 배어있다 하겠다. 상난 코뿔소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세상, 신속한 세상에 던지는 느림보 시인의 따뜻한 글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 느린 삶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이들이 곁에 두고 새겨볼 만한 책이다. <미음의숲·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 과학자가 쓴 '인생 안내서'

지루한 사람과 ... 제임스 왓슨 지음



1962년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이 쓴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는 노 과학자의 인생철학을 담은 자서전이자 사회생활을 풀어나갈 열쇠를 담은 자기계발서이다. 왓슨은 어린 시절,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조교수 시절 등 자신이 겪어온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그 기를 지나온 인생 선배로서 느낀, 일종의 체제들을 실감나게 들려준다. 또 왓슨이 인류의 생명의 비밀을 푼 연구과정과 함께 다룬 비밀, 즉 학계에서 경쟁하는 과학자 동료들과 어울리고 그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무조건 새겨야 할 교훈으로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고 제안한다. 왓슨은 이를 일상에서든 사회에서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에 있어 '철칙'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과학 연구에 매진하는 젊은이에게 "연구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대학교수에게는 "지원금 요청을 거부당해도 우아하게 받아들여라", 과학 행정가에게는 "과학자들을 야구팀처럼 관리하라"고 주문한다. 책은 학계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인생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레·2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휘자 34명의 삶과 예술혼

... 불멸의 지휘자 안동림 지음



클래식 음악팬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이 한장의 명반'의 저자 안동림씨가 두 번째 책 '안동림의 불멸의 지휘자'를 펴냈다. 청주대 영문과 교수 출신으로 소설가이자 한학자로도 이름이 높은 안씨는 '음악 전문가도 비평가도 아닌, 그저 애호가'라고 자신을 칭하지만 클래식 팬들은 뛰어난 식견과 군더더기 없는 그의 해설에 박수를 보내왔다. '이 한장의 명반' 이후 20여년만에 펴낸 "'불멸의 지휘자'는 20세기 클래식(史)을 관통했던 지휘자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토스카니니부터 시노폴리까지 34명 지휘자의 삶과 예술혼을 핵심을 짚은 간결한 글쓰기로 소개하고 있다. 책에서는 청중의 기호가 극단으로 갈리지만 '지휘자의 아이 콘'이 된 카리안, 저자가 '무계성의 개성'이라고 칭찬 유진 오만디, 뮤지컬 작곡가로도 이름을 알렸던 레너드 번슈타인 등을 만날 수 있다. 카리안과 넘치는 지휘 모습, 악보를 연구하는 모습 등 지휘자들의 생생한 표정을 포착해낸 사진 또한 일품이다. 각 지휘자의 대표 CD와 DVD를 함께 소개했으며 책 출간에 맞춰 EMI에서 동명의 이름으로 음반을 기획, 출시할 예정이다. <웅진지식하우스·2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개화기 여자 사기꾼 '따냐'

노서아 가비 김탁환 지음



'불멸의 이순신', '나, 황진이', '방각본 살인사건' 등을 발표하며 국내 액션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소설가 김탁환(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이 이번엔 기막힌 여자 사기꾼을 창조했다. '개화기 유쾌 사기극'을 표방한 소설 '노서아 가비'는 광활한 러시아를 배경으로 유럽 귀족들에게 술을 팔아치우는 사기꾼이자 카피를 좋아했던 고종 황제에게 매일 모닝 커피를 올린 가비의 여인 '따냐'를 주인공으로 한 책이다. 책 제목 '노서아 가비'는 '러시아 커피'를 뜻한다. 소설의 기본 열거는 황헌의 '매천야록' 가운데 실린 김홍륙의 일화에서 따왔다. 김홍륙은 러시아어에 능통, 아관파천 당시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다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자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 치사량의 아편을 넣은 사건의 당사자다. 극적 재미를 위해 김홍륙은 따냐의 연인이자 러시아에서부터 함께 사기를 친 '이반'이라는 캐릭터로 되살아났고, 독자 사건 역시 발생 시기를 조정했다. 때론 예측가능한 스토리가 조금 식상하기는 하지만 한편의 영화를 보듯, 쉽게 읽히는 덕에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려운 소설임에 틀림없다. <살림·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 E+ Plus Real Estate Agency). The ad features a large header '경매 취하 부동산' (Real Estate Auction Withdrawal) and '감정가 15-50% 할인 매물' (Real Estate with 15-50% discount on appraisal price).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 '부동산 경매 취하 금액 대납' (Real estate auction withdrawal amount payment)
-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 대환' (Real estate collateral loan amount repayment)
- '아파트·단독·다세대 주택·상가·토지' (Apartment, detached house, multi-family house, commercial building, land)
- '경매 취하 부동산 매물 상담' (Real estate auction withdrawal property consultation)
- '부동산 재테크 상담' (Real estate investment consultation)
The ad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공인중개사 백호기·감정상담사 박시연·투자상담사 최정현' (Licensed real estate agent Baek Ho-gi, appraisal consultant Park Si-yeon, investment consultant Choi Jeong-hyun) and phone numbers '062)224-5959' and '062)223-5151'.